

## 小兒 暑病에 對한 文獻的 考察

— 中暑, 傷暑中心으로 —

高聖哲\* · 李漢哲\*\* · 朴恩貞\*\*\* · 蔡重源\*\*\*\* · 丁奎萬\*\*\*\*\*

### I. 緒 論

暑란 夏節의 主氣로서 기본적으로 熱邪와 같으나, 炎熱하는 氣候와도 깊은 關係를 갖고서 發汗等으로 쉽게 津液과 氣를 빼앗기게 되고 病情進行이 가장 빠른 特性이 있으며;<sup>27)</sup> 暑熱은 傷氣할 뿐 傷形하지 않는다고 한다.<sup>28)</sup>

人間들이 이러한 暑熱을 避하기 위해 찬 음식을 過食한다든지, 쿨러等으로 過冷했을때는 또 다른 暑病이 되고,<sup>27)</sup> 炎熱의 氣候를 견디지 못해서 되는 病<sup>31)</sup>과 辨證해야 하는데, 原因과 症狀에 따라 中暑, 傷暑, 暑風, 暑厥의 四證으로

分類한다.<sup>1,5)</sup>

小兒는 陰氣未充 陽氣未盛하여 體溫調節機能이 不完全하므로 外界의 炎熱과 過冷을 쉽게 받아 暑病을 일으키는데 症狀이 감기와 비슷하면서도 辨證에 어려움이 있어, 四大 暑病中에서 傷寒과 類似하다고 생각되는 中暑, 傷暑로 分類되는 疾患에 대한 考察로 現代에 많이 發生하는 냉방병에 對한 基礎的인 資料가 되었으면 하여 若干의 知見을 報告하는 바이다.

### II. 本 論

表1. 中暑而病者(陽暑)

〈册 名〉	〈症 狀〉	〈治 療〉
· 東醫小兒科學 <sup>1)</sup> · 醫宗金鑑 <sup>5)</sup>	汗出, 身壯熱, 頭痛大渴, 煩不寧, 氣乏神倦, 兩足冷.	· 加味人蔘白虎湯
· 東醫寶鑑 <sup>3)</sup>	頭痛, 發燥熱, 惡熱, 捫之肌膚大熱 必大渴引飲, 汗大泄, 無氣以動, 及爲天熱外傷肺氣.	· 人蔘白虎湯 · 竹葉石膏湯
· 醫宗損益 <sup>4)</sup>	東醫寶鑑과 同一	· 人蔘白虎湯 · 竹葉石膏湯加附子冷服 · 蒼朮白虎湯
· 醫學正傳 <sup>6)</sup>	上과 同一	· 蒼朮白虎湯
· 六科準繩 <sup>8)</sup>	上과 同一	· 蒼朮白虎湯

\* 서울 진보韓醫院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 大田 해민韓醫院

〈册名〉	〈症狀〉	〈治療〉
・劉河間傷寒三六書 <sup>15)</sup>	身熱，頭痛，背寒而垢……。 〈無問表裏是通用〉	〈通用〉 ・白虎湯。
・萬病回春(上) <sup>18)</sup>	身熱，頭痛，洒然毛豨，微寒口開，前板齒燥，舌燥生苔，大煩渴	・人蔘白虎湯加香薷、藟豆。
・續名醫類案(上) <sup>23)</sup>	頭痛，身熱，心煩，燥渴，脈大而虛	・白虎湯
・驗方新編 <sup>20)</sup>	・身熱，頭痛，煩燥不安，或咳嗽，發熱汗出不止，然必熱有進退，脇下有汗	・白虎湯
・足本大字驗方新編 <sup>25)</sup>		・涼解清利
・洪家定診秘傳 <sup>26)</sup>		
・中醫學概論 <sup>27)</sup>		・白虎加人蔘湯 〈清熱益氣生津〉
・中醫學問答 <sup>28)</sup>	“因暑而受熱者”	
・吳氏兒科學 <sup>30)</sup>	・輕者 無汗身熱 宜從汗解之。 ・重者(深者) 發熱，口渴，多汗欲飲，胸膈悶煩，精神倦怠 ・體弱濕重者	・清暑湯 ・白虎湯  ・清暑益氣湯
・中醫兒科學 <sup>31)</sup>	長期發熱，口渴多飲，多尿汗閉。	・白虎加人蔘湯 ・清暑益氣湯

表2. 因暑而致病者(陰暑)

册名	原因	症狀	治療
・東醫小兒科學 <sup>1)</sup>		無汗熱渴面赤紅，乾噦惡心，腹絞痛，嗜臥懶食，肢重疼。	・清散二香飲。 ・氣虛：六合湯 ・夾食惡食多吐瀉 ：加味香薷湯
・醫宗金鑑 <sup>5)</sup>			
・東醫寶鑑 <sup>3)</sup>	・避暑於沈堂大厦	頭痛，惡寒身形狗急，肢節疼痛，煩心肌膚大熱無汗	・蒼朮白虎湯 ・六和湯加羌活川芎 蒼朮 ・二香散
	・感寒，乃取涼之過也	頭疼身痛，發熱惡寒 或胸腹痛 嘔吐泄瀉 * 風寒傷其外，又傷食生冷果瓜其內。	・藿香正氣散 去白朮加蒼朮

冊名	原因	症狀	治療
• 醫宗損益(上) <sup>6)</sup>	沈堂水閣	頭痛，惡寒，身形狗急，肢節痛，煩心，身大熱，無汗	• 二香散 • 茹薑湯 • 六和湯
• 醫學正傳 <sup>6)</sup>	避暑於深堂大厚	上斗 同一	• 大順散 〈熱藥主之〉
• 醫門寶鑑 <sup>7)</sup>	• 避暑貪涼	… 外襲陰涼鬱滯陽氣	• 茹薑湯
	• 內傷生冷	• 腹痛 嘔瀉	• 理中湯加麥芽砂仁 • 縮脾飲 • 大順散
• 六科準繩 <sup>8)</sup>	避暑熱納涼於深堂大厦	<sup>3),4),6)</sup> 斗 症狀同一。	• 大順散
• 景岳全書 <sup>11)</sup>	• 暑月受寒 (不謹衣被)		• 溫散爲主 〈傷寒法治之〉
	• 因暑受寒 (不慎口腹過食生冷)	嘔吐瀉，腹痛	• 溫中爲主
• 東垣十種醫書 <sup>16)</sup>	長夏濕熱大勝蒸 * 血先病而氣不病	四肢困倦，精神短少，懶於動作，胸滿氣促，肢節沈痛，或氣高而喘，身熱而煩心下膨痞，小便黃而少，大便溏而頻，或痢，或渴或不渴，不思飲食，自汗體重，或汗少	〈清燥之劑〉 • 清暑益氣湯
• 萬病回春(上) <sup>18)</sup>	感寒取涼之過也	頭痛，身痛，發熱，惡寒，或惡心嘔吐，泄瀉腹痛 * 內傷生冷 外感風寒所致也。	• 藿香正氣散
• 丹溪心法 <sup>19)</sup> 附餘	避暑熱，納涼於深堂大厦大扇風車	<sup>3),4),6),8)</sup> 斗 症狀 同一。	辛溫之劑 解表散寒 厚朴，紫蘇，乾葛 藿香，羌活，蒼朮
	* 外受寒	內傷生冷	加乾干，神曲，縮砂
	* 外不受寒	但只內傷生冷	• 縮脾飲，理中湯加 〈溫中消食〉
	* 既傷暑熱	復傷生冷	〈先溫中消食 後清暑補氣 以理脾〉

册 名	原 因	症 狀	治 療
· 中醫學概論 <sup>27)</sup>  · 中醫學問答 <sup>28)</sup>	寒濕수반 (찬음식과음. 쿨리過冷却)  涼飲過度 (感受風寒之 邪)	心煩口渴, 胸悶嘔惡, 納保, 食少, 倦怠  〈內有暑濕  증상〉  發熱, 惡寒, 頭痛, 身痛, 無汗, 脈浮  〈寒邪束表  증상〉	解表散寒 化濕解暑 〈香薷飲〉

### Ⅲ. 總括 및 考察

여름이되면 天熱 地火로 主氣를 이루는 바, 人間은 오래 前부터 더위를 避하기 위해 深堂 大廈로 避한다든지, 扇風車 等으로 식히려 했다. 하지만 適當하지 못하고 過度한다면 病이 되기 쉬우니 熱 자체로 인해 病이 되었는지, 아니면 熱을 避하려다 過冷하여 病이 되었는지 구별하여 治療해야할 것이다.

#### (1) 傷寒과 差異點

肅란 본래 夏月의 熱症이지만 景岳<sup>11)</sup>은 內經을 근거로 “在冬之寒邪를 正傷寒” “在春之溫을 溫病” “在夏之暑를 暑病”이라 하면서 모두가 傷寒의 別名이라고 했다.

즉, 內經<sup>2)</sup>에서 “冬傷于寒 春必病溫” 〈生氣通天論〉, “凡病傷寒而成溫者 先夏至日者爲病溫, 後夏至日者爲病暑” 〈熱論〉이라 하였고, 龔<sup>10)</sup>은 “夏월에 四證이 있는데, 脈緊惡寒者傷寒, 脈緩惡風者傷風, 脈盛壯熱者熱病, 脈虛身熱者傷暑라고 하였으며, 內經<sup>2)</sup> 刺志論에서는 “氣盛身寒 得之傷寒, 氣虛身熱 得之傷暑”라고 하였으니 結論적으로 傷寒病에 모두가 포함된다 할 수 있다.

다시말해 景岳<sup>11)</sup>이 “因暑而感寒者 寒則傷形 卽傷寒也, 因暑而受熱者 熱則傷氣 卽傷暑也”라고 하였듯이 더위를 피하는 過程에서 身體를 傷함의 有無로 區別한 것으로 正傷寒과는 治療方法에서 差異가 있겠다.

#### (2) 陰暑와 陽暑

‘靜而得之者 中暑, 中暑者陰證’, ‘動而得之者中熱 中熱者 陽證’<sup>3)</sup> 4, 6, 8, 9, 11, 18, 20, 25, 26, 29)이라하여 暑病에 陰陽 區別을 하였다. 李<sup>9)</sup>는 中熱을 中暈로 하면서 自被日暈한 것이며, 中暑는 自襲暑氣한 것이라고 했으며, 景岳<sup>11)</sup>은 因暑而受寒者를 陰暑, 因暑而受熱者를 陽暑로 하여 中暑而病者와 因暑而致病者로 陽證, 陰證으로 하였고, 中醫學概論<sup>27)</sup>에서는 中暑를 日射病, 熱邪病에, 陰暑는 暑邪에 寒濕을 隨伴한 것으로 여름감기에 該當한다고 까지 했는바 內傷과 外感에의 不同함으로 治法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주는바 表裏와 陰陽을 구별하고 관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던 것이다.<sup>11)</sup>

즉 小兒의 特性상 3세이하의 小兒가 暑熱症이 많다고 했지만<sup>31)</sup>, 요즘 부모의 過剩 保護에따라 暑氣보다는 에어컨 선풍기 등의 쿨

러에 의한 寒邪의 外感과, 生冷한 飲食이나 果  
 蔬, 水冷物을 過飲하는 內傷에 의한 ‘因暑而  
 致病者’의 陰暑 系統의 病이 많으리라 思料된다.

### (3) 症狀과 治療

許<sup>3)</sup>는 暑病에 身熱, 自汗, 口乾, 面垢而已  
 한다 했고, 醫學心悟<sup>20)</sup>에서는 辨法에 自汗, 口  
 渴, 煩心, 溺赤, 身熱, 脈虛가 適當하다고 했으  
 며, 또한 周<sup>7)</sup>는 이러한 症狀外에 變生해서 吐  
 瀉 逆冷, 瘧痢諸證이 되고, 이들은 대개 腠理開  
 泄해 眞氣가 不藏되게 하므로, 各類를 나누어  
 그 虛實에 따라 施治하라고 하고 있다.

即, 臨床에서 小兒의 症狀를 살펴보면 “中暑  
 而病者”와 “因暑而致病者로 나누어서 辨症  
 施治함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 ① 中暑而病者(陽暑)

‘動而得之者’라고 하듯 暑熱에 의한 직  
 접적인 作用으로 因해 鬱熱 및 脫水에 의한 疾  
 病으로서 日射病, 熱射病에 該當한다고 할 수  
 있고, 症狀의 輕重의 差異에 따라 分類가 가능  
 하며<sup>21)</sup> 一般的인 症狀으로 汗出 身熱, 大渴引  
 飲, 心煩不安 等症이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러  
 한 熱邪를 치는 方法으로 涼劑를 주로 쓰니<sup>6)</sup>  
 白虎湯, 蒼朮白虎湯, 人蔘白虎湯類가 바로 이것  
 이다(表1 참조).

그러나, 주목할만한 것은 涼劑로 清熱하되 暑  
 病이 “脈虛身熱得之”<sup>22)</sup>라고 하듯이 氣虛, 脫  
 水가 있기 때문에 益氣生津도 필요하므로 따라  
 서, 白虎湯類에 人蔘等이 加味되는 것을 간과해  
 서는 안되리라 思料된다.

#### ② 因暑而致病者(陰暑)

여름의 暑熱을 避하기 爲해 取하는 행동  
 으로 인해 發生하는 疾病으로, 暑熱의 病(陽  
 邪)은 外感이 暑邪에 의해서만 發生한다지만<sup>6)</sup>  
 陰暑는 先外感後內傷의 病이 함께 病發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即, 既傷暑熱 後傷生冷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19)</sup>

表2에서 볼때, 共通的으로 보일 수 있는 一  
 般症狀을 “頭痛, 惡寒, 身形拘急, 肢節痛, 煩  
 心 身大熱, 無汗<sup>3,4,6,8,10,28)</sup>”이라 할 수 있고  
 그의 腹痛, 嘔吐, 泄瀉 等の 症狀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中醫學問答<sup>28)</sup>에 依하면 心煩口渴  
 에 食少倦怠는 內傷으로서 暑濕의 形態로 보  
 여지고, 頭痛 發熱 惡寒 身痛 無汗은 寒邪束  
 表의 症狀으로 外感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한다.  
 即, 여름이면 陽氣는 풍선의 바람처럼 밖으로  
 부풀어나가고, 陰氣는 內部에 侵伏하는데 이렇  
 게 된 陰暑를 原因과 症狀으로 구분해 보자면  
 다음 3가지로 大別해 볼 수 있겠다.

첫째, 暑를 피하게 하려고 父母들은 過剩保  
 護로 小兒들을 시원한 곳을 찾아주거나, 에어컨,  
 선풍기등을 많이 쏘여주므로써 房室之陰寒  
 이 周身의 陽氣를 막아서 不得伸越하게 하여  
 病이 되는 경우로<sup>3,4,6,8,10)</sup> 현대의 냉방병에  
 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丹溪<sup>19)</sup>는 辛溫  
 之劑로 解表散寒해야한다 했고, 景岳<sup>11)</sup>은 溫  
 散하여 傷寒法治之하라는 경우이니 二香散, 茹  
 藿湯, 六和湯을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醫  
 學正傳<sup>6)</sup>이나 六科準繩<sup>8)</sup>에서 말하는 大順散  
 의 熱藥만으로 치료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고 思料된다.

둘째, 因暑受寒의 寒이 直中한 경우로서, 生  
 冷物을 不慎하여 過多服用함으로써 寒涼의 氣  
 가 在內하여 臟을 傷하여 嘔吐 泄瀉 腹痛이 있  
 는 경우이니 이때는 外不受寒인바, 溫中消食<sup>19)</sup>  
 으로 大順散, 縮脾飲, 理中湯이 代表的인 處方  
 이라 하겠다.

셋째, 感風寒에 納涼之過로 곧, 風寒으로 外  
 를 傷하고 또, 小兒들이 氷雪이나, 生冷한 과  
 일, 야채류 등을 먹어 內를 傷하여 頭疼身痛

發熱惡寒에 腹痛, 嘔吐, 泄瀉 등의 症狀이 있는 경우로 이때는 藿香正氣散類를 쓰되 蒼朮을 白朮 대신 加하여 쓰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sup>3)18)</sup>

그러나, 小兒은 氣血이 不充分的 身體條件이므로<sup>27)</sup> 暑에 傷할 뿐만 아니라, 暑熱이 있는 氣候에서 生冷物을 먹어서 外熱內寒으로 쉽게 濕이 동반되어 濕熱이 되기 쉬우니, 東垣은<sup>16)</sup> 血先病而氣不病이라하여 清燥之劑로 治療하라고 하였고, 丹溪도<sup>19)</sup> 이미 暑熱에 傷한 후 다시 生冷物에 傷해 外熱內寒하면 먼저 溫中消食하고, 다음에 清暑補氣로서 理脾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小兒가 더위를 먹어 四肢困倦 懶於動作, 胸滿氣促 身熱而煩, 心下膨痞, 小便量少, 大便은 자주 똥게보고, 飲食생각이 없는 경우에<sup>16)</sup> 補를 하면서 清暑하고 또한 補脾하는 清暑益氣湯의 重要性은 소홀히 다룰 수 없다고 思料된다.

以上을 總括해보면 小兒은 모든 臟器와 氣血이 未充未盛하므로 적당치 못한 行動 즉, 더위를 너무 많이 맞는다든지, 寒冷的 에어컨등이라든지, 生冷的 야채 과일 병과류등을 많이 먹는다든지 하는 하나의 더위와 관련된 모든 行動에 中庸을 지키는 것이 좋으리라 思料된다.

#### IV. 結 論

暑에 對한 諸文獻을 調査, 分析한 結果 小兒 暑病에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小兒暑病은 陽邪에 依한 中暑, 陰邪에 依한 傷暑와, 暑風, 暑厥의 四證으로 分類한다.
2. 小兒暑病은 傷寒과 類似하지만, 暑病은 節期의 氣候에 따른 傷寒의 別名이다.
3. 陽暑는 動而得之者로 中暑, 中熱, 中暈

로 부르며, 陰暑는 靜而得之者로 症狀에 따라 辨證한다.

4. 治療는 解暑를 原則으로 하되 原因과 症狀에 따라 辨證하여 다음과같이 治療한다.

- ① 陽暑는 涼劑로 蒼朮白虎湯, 人蔘白虎湯類를 쓴다.
- ② 陰暑는
  - 陽氣를 鬱遏한 경우에 溫散시키는 二香散, 茹藿湯, 六和湯類
  - 寒邪直中한 경우에 溫中시키는 大順散, 理中湯加味, 縮脾飲類
  - 內傷外感에 藿香正氣散 去白朮 加蒼朮類가 있다.

③ 暑로 인해 濕熱되어 더욱 虛弱해진 경우 清暑益氣湯이 있다.

5. 小兒은 氣血이 不足하고 臟器가 嫩弱하므로 暑를 避하되, 過度한 行爲는 禁하도록 해야한다.

#### 參 考 文 獻

1. 丁奎萬 : 東醫小兒科學, 행림출판, 1985, p.224-226.
2. 楊維傑 : 黃帝內經素問譯解, 樂群出版公司, p.22, 31, 35, 36, 256, 388.
3. 許 浚 : 東醫寶鑑, 대만 東方書店, p.409, 410, 412.
4. 黃道淵 : 醫宗損益(上), 醫藥社, 1976, p.405, 406, 407, 412.
5. 清, 太醫院御醫 : 醫宗金鑑(下), 翰林社, 1975, p.53, 54.
6. 虞天民 : 醫學正傳, 1972, 醫文社, p.173, 174.
7. 周命新 : 醫門寶鑑,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

- 部, 1987, p.49, 50, 53.
8. 王肯堂：六科準繩，東明社，1975, p.28, 29.
  9. 李 梃：編註醫學入門，大星文化社，1981, p.312.
  10. 吳得冰：惠庵醫方，醫藥社，1978, p.197.
  11. 張介賓：景岳全書，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1978, p.268, 269.
  12. 咸鏞允：中醫漢方，樂業新聞出版局，1982, p.307.
  13. 朴鐘甲譯：中國漢方醫學叢書，1972, 東洋綜合通信教育部. p.135.
  14. 李基淳：漢方內科學，壽文社，1969, p.169, 170.
  15. 劉河間：劉河間傷寒三六書，成輔社，1976, p.505.
  16. 李東垣：東垣十種醫書 同仁社，1976, p.46.
  17. 謝元慶：良方集腋，正進社，1976, p.89, 90.
  18. 龔廷賢：萬病回春，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1985, 卷上, p.88, 89, 90, 91.
  19. 朱震亨：丹溪心法(附錄)，五州出版社，卷2, p.1, 5.
  20. 鮑相璈. 王凱：驗方新編，卷八，醫林書局，p.1.
  21. 葉天士：臨證指南醫案, p.332, 348.
  22. 洪金鼎：扁鵲心書，醫方一盤珠合訂本，臺北，新文豐出版公司，卷1，四.
  23. 魏之秀：續名醫類案上，宏業書局有限公司，清, p.87, 88.
  24. 張子和：儒門事親 卷四，旋風出版社, p.2.
  25. 李遜齋：足本大字驗方新編，1986, 上海啓新書局, p.717.
  26. 洪淳昇：洪家定診秘傳，大星文化社，1983, p.114.
  27. 鄭進機 外譯：中醫學概論，第一社，1985, p.246-247, p.248.
  28. 楊醫竝：中醫學問答(上)，人民衛生出版社, p.49.
  29. 友聯出版社：醫學心悟，友聯書報發行公司，1961, p.136, 137.
  30. 吳克潛：吳氏兒科學，新文豐出版公司, p.287.
  31. 上海中醫學院：中醫兒科學，商務印書館，1981, p.150.